

# 제2수원지 안전불감... 댐 누수·군열 알고도 방치

### 광주시 지난 5월 문제점 발견 불구 정밀진단 미뤄 안전 위한 댐수량도 제대로 안지키고 안일 대응

광주시가 동구 용연동 제2수원지의 안전 취약성을 인식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댐 누수 현상 및 콘크리트 군열 등의 상황을 파악했으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미루는가 하면, 안전을 위한 댐수량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세월호 침몰 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데도 자치단체의 ‘괜찮겠지’라는 위험한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용연동 2수원지의 댐(높이 25m·길이 143m) 상부 벽면에 백화(白化) 현상(외벽에 스며든 물로 인해 염분이 녹

아나와 마르면서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 취약성이 발견됐는데도, 댐 댐수량(최대 댐수량 50만4000t)을 60% 이하로 낮춰 유지하는 것 외에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를 미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구성된 5월 민간합동점검단의 ‘광주지역 재해 위험성이 높은 122개소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2수원지댐의 긴급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당시 광주시 민간합동점검단은 “집중호우시 만수가 불가피하며 댐 누수 및 콘크리트 군열이 발생되고 있어 긴급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긴급 정밀안전진단이 예산 문제로 즉각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에도,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 유지·보수 방안을 벗어난 다른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댐 구조상 배수량이 극히 한정돼 비가 많

이 오는 여름철에는 제한 댐수량 60%를 훌쩍 넘는 경우가 생겨났고 집중호우 때는 만수위를 넘는 경우도 빚어졌지만 안전 조치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8월 25일 광주지역에 86mm의 비가 내리면서 물고름을 가득 채워 넘쳐 흐르기도 했다. 지난해도 7월 4~5일 이틀간 189mm의 내린 비로 만수위를 넘어섰다. 댐이 흘러 넘치는데도 특별한 시민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을거야’라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후 9월에야 백화 현상 등이 발생한 데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 소홀하게 다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하루 평균 47만~48만t의 물

사용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 2~5만t 수준의 물 공급을 위해 2수원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16년이면 인근 도수터널이 완공되면 활용가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측은 “누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워낙 노후화된 탓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즉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2수원지 댐에 대해 지난 2004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벽면군열·흄물·부식·재료분리 등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은 뒤 보강 공사 완료까지 안전저수율(50.8%)을 유지하라는 결과를 받아 그해 긴급 단면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전남 선거 사법 전국 최다 ‘불명예’

### 6·4지방선거 관련 500명 넘어서 벌금 90만원 김성 장흥군수 직 유지

광주·전남지역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500명을 넘어섰다. 적발 수치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관할 순천지청이 131명을 입건, 50명을 기소한 것을 비롯, 목포지청 98명(50명 기소), 해남지청 28명(5명 기소), 장흥지청 8명(4명 기소) 등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523명을 입건, 206명을 기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 사범을 적발했다.

검찰이 12월 4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 및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노회용광주 동구청장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 장흥군수도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검찰이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석달만에 밝혀진 병원 여직원 사망 원인 프로포폴 과다투여 따른 폐질환

### 광주서... 총 26차례 투여 연인관계인 병원장 영장 마약류 관리 허점 드러나

석 달 전 광주 서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숨진 병원 여직원의 사망 원인이 ‘프로포폴’ 과다투여에 의한 폐질환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숨진 여직원은 연인관계에 있던 병원장으로부터 사망하기 전 1개월간 총 26차례에 걸쳐 삼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여전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석 달 만에 드러난 사인=28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 모 성형외과에서 근무중이던 A(30)씨가 숨진 것은 지난 7월 28일 자정께. A씨는 전날 자정께 병원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장 B(51)씨에 의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팔뚝에 주사바늘 흔적이 여러 남아있는데다 사인도 명확하지 않은 탓에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의뢰했다.

경찰은 또 사인 규명을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과 관리대장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9월 말께 국과수로부터 숨진 A씨의 사인은 프로포폴 과다 투여에 의한 폐질환으로 추정되며, 혈액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분석됐다는 사실을 통

보받았다. 병원장 B씨의 소변과 모발에서도 프로포폴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의료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하지 않고 ▲의식을 잃은 A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항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그러나 “구호조치에 소홀함이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도 수술에 따른 것이며, 자신도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 허점=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널리 쓰이지만 마약류로 지정돼 의료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사용일시 ▲목적 ▲재고량 및 사용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도 병원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없고 보건소에 반납해야 한다. 보건소는 관내 마약류·소매업자, 의료업자 등을 2년에 1회, 지방의약청도 같은 기간 마약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수출업자, 학술연구자 등을 정기 감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보건소 마다 2년에 1차례씩, 1~2명이 수백 개씩 단속하는 탓에 마약류에 관한 적절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가 난 서구에는 병원이 48곳, 약국 등 147곳이 있지만, 보건소 공무원들은 단 1명으로 최근 2년간 5곳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제설함 모래주머니 채우기

광주시 북구청공무원들이 28일 석곡동 충민사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제설함에 모래주머니를 채워넣고 있다. 북구는 2만개의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제작, 겨울철 빙판길 사고 다발지역에

채워넣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우치동물원 “자연산 벗짚 구합니다”

“자연산 벗짚 구합니다.” 광주우치동물원이 입동(立冬·내달 7일)을 앞두고 초식동물사 자급 이영작업에 필요한 자연산 벗짚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자연산 벗짚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가격 인상에 대비, 입도선매(立稻先賣)를 하면서 벗짚 품귀현상이 빚어진 탓이다.

우치동물원은 다음달 초부터 초식동물

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제주말·당나귀·흑염소·면양 등이 사는 초식동물사 초가지붕 이영작업을 진행했다.

이영작업은 한 해 목은 이영(벗짚)을 견어내고 새 벗짚을 끼는 것을 말한다. 올해 겨울을 앞두고 우치동물원이 이영작업에 필요한 물량은 약 20kg(예산 20만 원).

하지만 벗짚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우치동물원은 이마저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소 등 가축에게 먹이기 위한 벗짚 가격과

사료용 수입건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올해 200평(660㎡) 기준 거래가는 3만 원으로 지난해 2만~2만5000원보다 5000원~1만 원 가량 올랐다. 미국·호주 등 수입산 건조 가격도 1톤당 36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원 가량 상승했다.

가축 먹이값 상승은 축산농가들의 입도선매로 이어졌고 소규모 집단을 필요로 하는 동물원이나 민속촌 등지에서 벗짚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우치동물원은 이달 말까지 자연산 벗짚을 구하지 못하면 비닐로 된 인조 벗짚으로 자급보수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FC 숙소서 축구화 홈쳐 팔아

○프로축구팀 광주 FC 숙소에서 몰래 들어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축구화 수 십 켤레를 훔친 팬이 경찰서서형.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보(36)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광주서 서구 삼암동 광주FC 축구팀 숙소 4층에서 프로축구선수 김모(25)씨의 축구화 7켤레를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축구화 13켤레(시가 39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

○경찰은 숙소 인근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정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정씨는 “평소 좋아하는 선수의 축구화를 신으면 축구가 잘 될 것 같아서 훔치게 됐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양임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물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2억8천

010-6832-9700

**목포시 옹해동 전원주택매**

바닷가 5분  
옹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2억8천

062)527-7600

**오피스텔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1억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

062)527-76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장저렴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군/린/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780.2㎡,건1992.57㎡) 감평가 24억7천 최저가 13억8천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동구 동명동 (토지838㎡,건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17억 신건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171㎡,건501㎡) 감평가 2억7천최저가 2억7천 신건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372㎡,건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 유찰1회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1599㎡,건17380㎡) 감평가 200억 최저가 200억 신건

군/린/주/택

- 광주 광산구 소천동 (토지400㎡,건294㎡) 감평가 3억7천 / 최저가 3억7천 신건
- 광주 동구 학동 (토지204㎡,건541㎡)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신건
-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197㎡,건362㎡)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 신건

숙/박/시/설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1182㎡,건22289㎡) 감평가 32억 / 최저가 10억8천 유찰2회
- 광주 서구 광천동 (토지 235㎡, 건 980㎡) 감평가 7억 / 최저가 4억 유찰2회

오/피/스/텔

- 광주 광주 동구 (토지6.6㎡,건24㎡) 감평가 2천4백 / 최저가 1천9백 유찰1회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4.9㎡,건31㎡) 감평가 6천 / 최저가 3천 유찰2회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42㎡,건190㎡) 감평가 3억 / 최저가 8천 유찰6회

공 장

- 광주 광산구 옥동 (토지16315㎡) 감평가 150억 / 최저가 150억 신건
- 광주 광산구 월전동 (토지4162㎡, 건3582㎡) 감평가 300억 / 최저가 20억 유찰2회

대 지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3974㎡) 감평가 44억 / 최저가 31억 투자적합
- 광주 광산구 용동 (토지787㎡)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7천3백 (유찰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가측처럼 가져처럼 같이하십시오/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황, 설계, 부동산 관련 전제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경리구함

010-6670-9800, 062)952-5584